

# 동네서점에 청소년 위한 '종이약국'

확장 이전 한라서적타운 오프라인 서점 살길 모색

서점 견학 프로그램 시행 독서모임·세미나 공간도 "문화 부흥의 랜드마크"



한라서적타운 내부. 청소년을 위한 '종이약국' 등 책을 매개로 위로와 치유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연간 독서율, 독서량, 공공도서관 이용률,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등 주요 독서지표 5대 항목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제주지역 오프라인 서점도 그에 맞춰 매출 실적이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책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오프라인 서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서점의 살길을 적극 모색하는 곳이 있다. 제주시 동광로 한라서적타운(대표 박경호)이다. 1994년 9월 문을 연 한라서적타운은 지난해 9월 1층 서점, 2~3층 주차장을 구비하고 확장 이전했다. 한라서적타운은 이번에 '제주 르네상스를 위한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서점을 새롭게 꾸미고 책을 매개로 한 쉼터 기능을 강화했다. 시간을 두고 편안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

는 공간을 늘렸다. 청소년들을 위해 선 추천도서 등을 모아놓은 '종이약국'을 뒀다. 학교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영혼을 책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아 붙여진 이름이다. 독서모임, 세미나, 작가 강연회, 영화 감상 등이 가능한 세미나실도 있다. 차 한잔 나누며 책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북카페도 마련했다.

학교 현장학습 등 서점 견학 프로그램은 기존 독서 교육에 변화를 주기 위해 도입했다. 부모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이른바 '필독서'를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서점을 찾아 책을 고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고른 책이 어떤 것이든 존중해 줘야 한다. 실제 서점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이 도서관 이용량이 늘고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라서적타운이 "언제까지 서점을 운영할 수 있을지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시설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이유는 서점, 출판이 국가의 '지식기반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재상 한라서적타운 실장은 서점 견학을 "아이가 책과 만나 결혼하는 일"에 비유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처럼 마음에 드는 책을 사주고 관계를 맺는 공간이 서점이라고 했다. 그는 "도서관전정가제를 시행하고 서점 나들이를 정례화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책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기안84 웹툰 강의 온라인으로 만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실무·현장형 미디어교육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일반인 미디어교육 '온라인 클래스'가 개설된다. 이 교육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한 기본 소양과 기초 능력 습득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각 분야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실제 현장 실무와 사례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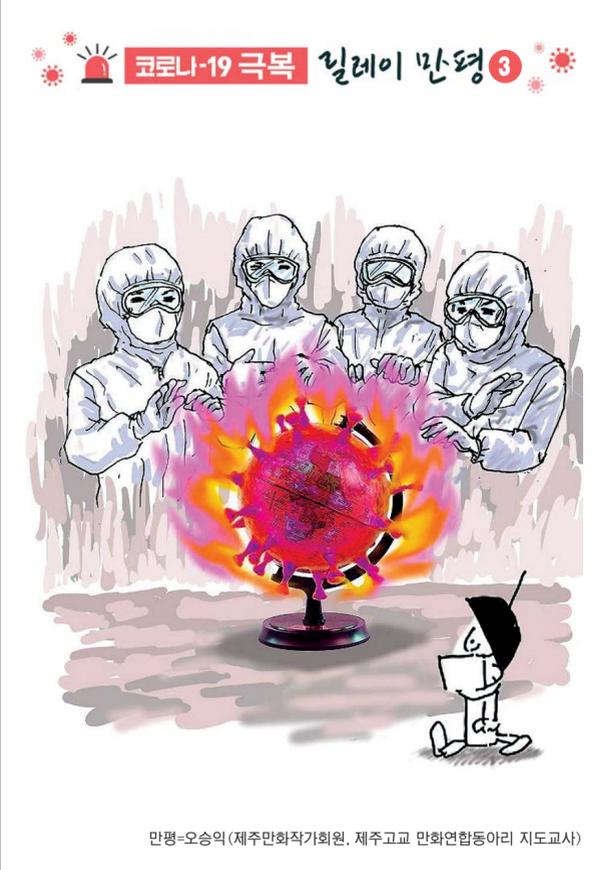
개설되는 강좌는 총 3개다. 웹소설 작가 산경, 사진작가 무궁화소녀, 웹툰작가 기안84의 생생한 실무 이야기와 현장 스킬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강좌인 산경 작가의 '웹소설을 이야기하다'는 수강 신청이 마감된 상태로 교육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무지개소녀의 '쉽게 배우는 사진촬영과 색감보정' 교육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선착순 접수가 이루어진다. 교육은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세 번째 강좌 기안84의 '웹툰 일단 그려보자, 색다르게' 교

육은 5월 11부터 5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한다. 교육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된다.

교육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click0925@ofjeju.kr)로 접수하면 된다. 승인문자(계정 부여)를 받은 후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coloso.co.kr/)을 통해 스트리밍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교육 참가자는 강좌신청 중 편집실이나 교육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다. 문의 064)735-0615.

진선희기자



만평=오승익(제주만화작가협회, 제주고교 만화연합동아리 지도교사)

# 제주해녀와 1박 2일 살아볼까요

제주마을문화진흥원 주최 내달부터 해녀문화 사업

사단법인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사장 안정업)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 해녀문화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일원에서 펼친다.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해녀문화 사업은 '이어서! 저러져라, 이어서! 이어도사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제주해녀와 1박 2일 살아보기, 해녀문화제, 일자리 창출형 해녀문화 상품개발과 프리마켓, 왕 북새! 해녀 문화 탐방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제주해녀와 1박 2일 살아보기'는 그동안 전국 각지 참가자가 모여들었던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60가구를 대상으로 제주해녀의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 별도의 신청을 통해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다. 문의 064)735-0615.

한경면 고산리와 구좌읍 김녕리, 서귀포시 오조리와 성산포 등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해녀문화제는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서귀포 문화재 야행과 병행해 치른다. 해녀 공연단, 문화예술인 참여 마당과 전국에서 오는 바다수영인 동호회 회원 150여명의 '해녀의 물길따라 바다 수영하기' 행사가 이어진다.

일자리 창출형 해녀문화 상품 개발과 프리마켓은 도내 축제장에서 별도 부스를 차려 운영할 예정이다. 해녀문화 탐방은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40명 기준 5개 단체를 모집해 해녀항일운동 기념관, 해녀박물관, 할망바당, 불턱, 해녀 공덕비 등을 찾는다.

안정업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참가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인 해녀와 함께 1박 2일 살아보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2258-0288.

진선희기자

# 문화가 쏠지

제주어 기본교육과정 개설

제주어보전회(이사장 김정민)는 제주어 강사 육성과정으로 제주어 기본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이루어진다. 제주어 표기법, 제주의 속담·설화·민요·식물·농어촌 문화, 제주어 문학과 글쓰기, 노래 부르기, 전통체험 등이다. 제주어보전회는 기본교육 후 심화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제주어 선생' 자격을 부여하고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에 강사로 파견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제주어 선생'은 71명이다.

5월 18일까지 수강생 5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7만원. 다만 교육 장소와 개강일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문의 723-2495.

인문독서아카데미 3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0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85곳을 선정·발표했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은 인문, 역사, 철학 등을 융합한 통섭형 인문학 강의가 중심으로 수행기관마다 단일 주제로 15장 이상, 30시간 이상의 심화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기관은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인문독서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며 강사로, 교재 제작비, 홍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수행 기관 공모에는 전국 문화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163곳이 참여했고 서면 심사, 종합 대면 심사를 거쳐 총 85곳을 결정했다. 제주에서는 제주도 한라도서관, 제주시 우당도서관, 애월도서관 3곳이 포함됐다.

찾아가는 꿈바당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운영법인(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2020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도서관의 우수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독서, 자연체험, 제주문화, 가족소통, 소규모 독서활동 프로그램 등 다섯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접수는 5월 3일까지 이메일(only0965@jiles.or.kr)로 한다. 문의 745-7101.

# 주택용 태양광 50%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 2020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지원범위 : 세대당 3kW  
보조금 : 공사비의 50%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